

<3등>

제 2회 成均 한글 백일장

No. 1

大學	북관대학교	學科	한국어학과	學年	3	姓名 (한자)	張娟美	(한글)	장연미
----	-------	----	-------	----	---	---------	-----	------	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나눔
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늘 나한테
나눔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다. 여동생이
한 명 있는 나는 나눔이란 것을 잘 안
다.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
무엇든지 동생이랑 꼭 반 반 나뉘었다.
언니인 나는 원래 양복보았어야 되는데
그때 절이 없어서 자꾸 동생이 가진 만
큼 가져야 마음이 편한 것이다. 우리
집은 별로 여유 있는 집이 아니라서
사과든지 과자든지 항상 둘이 나눠 먹
곤 했다.
나이가 들면서 나눔에 대한 견해도
점점 깊어진다. 물질적인 것을 나눌 수
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나눌
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. 기쁨과 슬픔,
즐거움과 고통, 행복과 불행, 서로 마음
을 털어놓으면 그런 것들을 모두 나눌
수 있는 것이다. 혼자서 기쁨에 잠기는
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? 기쁨은
남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의 진정한 의
미를 보며 줄 수는 없다. 즐거움과 행
복도 앎과 찬가지다. 그리고 혼자서 슬픔
에 빠진다면 누구나 그 슬픔 때문에
더 우울한 사감이 될지도 모른다.

제 2회 成均 한글 백일장

No. 2

大學	북한 대학교	學科	한국어 학과	學年	3	姓名 (한자)	張娟美	(한글)	장연미
----	--------	----	--------	----	---	---------	-----	------	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 슬픔을 알려 준다
 면 위로 를 받고 그 슬픔에서 벗어나
 수 있다. 고통과 불행도 그렇게 많나?
 좋은 일에든지, 만 좋은 일에든지 귀가
 기울려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얼마나
 행복한 일인가?
 우리가 살아 있는 세상은 함께 나누
 는 세상이다. 우리의 삶은 남과 나누면
 서 즐기는 삶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
 는 나눔을 배워야 한다. 남을 위해서가
 아니라 자기 의 마음 다운 삶과 미인생을
 위해서이다. 무엇보다도 남과 더불어 나
 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큰 행복을 느낄
 수 있다.
 내가 한국에 있었던 일이 다 다른 나
 라에서 자기 나라 사람을 만난 것은
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니다. 그래서 나는
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두 친구와 소중한
 인연을 맺었다. 한 친구는 서취라고 하
 고 다른 한 친구는 독특하게 왕비라고
 한다.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세 사람의
 우정도 두터워졌다. 어느날 나하고 왕비
 가 서취 방에 들어갔더니 서취는 혼자
 서 침대에 앉고 있고 앉은 채 흐느끼고
 있었다. 왕비는 머리 동전 한 통 정으로 부

제 2회 成均 한글 백일장

No. 3

大學	북한대학교	學科	한국어	學年	3	姓名 (한자)	張娟美	(한글)	장연미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---	-----	------	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손으로 이 빛을 나누고 물이 났는데 서취는
 한국에 가져온 돈을 다 써 버렸다고
 대답했다. 우리는 서취의 가정 형편이
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둘이
 주저없이 돈을 몇 만 원씩 뽑아서 서취에게
 주기로 했다. 벼룩 큰 동이 아니지만
 서취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. 돈 때문
 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
 때문이다. 서취가 썸뚝했던 이만살이 때
 를 그때 나하고 왕비도 기쁨과 위안을
 느꼈다.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다
 른 것 아니라 바로 나눔이었다.
 나는 나눔을 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
 사람이라고 생각한다. 가족과 함께 나누
 거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거나 다 행복한
 것이다. 좋은 빛이 생겼을 때 그 기쁨
 과 즐거움을 나눠 줄 사람이 없으면
 얼마나 속상한 일인가? 만 좋은 빛이
 있을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면 얼
 마나 외로울까? 하지만 남과 함께 나
 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.
 어떤 때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한테 생
 긴 빛을 남에게 말려 주기 싫어한 다
 면 때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서 무
 든 자기만 갖고 싶어 한다.

제 2회 成均 한글 백일장

No. 4

大學	북관 대학교	學科	한국어	學年	3	姓名 (한자)	張娟美	(한글)	장연미
----	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---	-----	------	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그 때 우리 에 게 필 요 한 것 은 마음 을
 버 놓 는 것 이 다 .
 나 는 이 백 차 는 세 상 은
 다 운 제 상 분 까 : 나 는 기 뻔 과
 이 될 수 도 있 는 것 이 다 . 나 는 사 람 과
 같 도 될 수 도 있 는 것 이 다